

삼국유사에 구사된 범어 음역의 원류

정승석*

I 머리말. II 어산불영(魚山佛影)조의 범어.
III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조의 범어. IV 맺음말.

요약문 [주요어: 삼국유사, 일연, 범어음역, 관불삼매해경, 나건가라, 마나사, 불영(佛影), 문수(文殊), 오자진언(五子眞言)]

삼국유사의 어산불영조에서 언급되는 訶羅, 那乾訶羅, 那竭, 那竭呵는 모두 동일한 지명으로서 nagarahāra의 음역으로 파악된다. 또한 摩那斯의 원어는 manasvin으로서 주로 용왕 또는 해룡(海龍)의 이름이지만, 편찬자는 이것의 의미를 굳이 魚로 제시하여 萬魚寺의 유래와 결부시켰다. 이러한 음역어들의 궁극적인 원류로는 관불삼매해경을 지목할 수 있다. 한편 대산오만진신조에 열거된 呵囉婆佐曩, 達嚩唎佉野, 曩伽唎伽曩, 達嚩盧舍那는 일종의 수수께끼와 같은 음역이다. 음역의 일반 용례로써는 이것들에 상당하는 범어를 추정할 수 없다. 다만 이것들은 일종의 다리니로서 조합된 것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구절인 呵囉婆佐曩가 용도상의 의미와 표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할 수 있는 5자 진언(a-ra-pa-ca-na)과 합치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음역어들을 언급하는 대산오만진신조는 문수신앙과 직결되어 있다.

본론의 고찰은 범어 음역의 변형이나 와전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삼국유사의 역주자들은 이러한 고찰을 활용함으로써 삼국유사의 이해에 더욱 유용한 지식을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 머리말

삼국유사(三國遺事)는 불승인 일연(一然)에 의해 고려시대 후기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46).

* 鄭承碩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교수. jungss@dgu.edu

인 충렬왕 때 편찬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편찬자가 스님인 만큼 삼국유사는 사서(史書)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불교 관련 기사를 많이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불교 관련 기사 중에는 불교의 전문가가 많이 구사되는데, 이것들은 대체로 범어를 음역한 한자어(이하 음역어)이다.

삼국유사의 전반에 걸쳐 사용된 음역어는 중복을 제외하면 약 90여 종이다.¹⁾ 그런데 이것들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은 권3의 탑상(塔像) 중 어산불영(魚山佛影) 조목과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 조목이다. 즉 어산불영조에서는 18종, 대산오만진신조에서는 16종의 음역어가 구사된다.

중국에서 번역 또는 찬술된 불전들을 집성한 고려대장경의 재조본이 1251년에 완성되었고, 삼국유사는 이로부터 약 30년 후에 편찬되었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편찬자인 일연은 불교어를 정확히 구사하는 데 충분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실제로 삼국유사에는 아함경(阿含經), 열반경(涅槃經),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²⁾, 화엄경(華嚴經), 반야경(般若經), 법화경(法華經), 관불삼매경(觀佛三昧經)³⁾, 약사경(藥師經),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 인왕경(仁王經), 범망경(梵網經) 등의 불전들이 언급되거나 인용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언급되는 음역어들 중 기존 불전들의 용례가 전무하거나 불투명한 것들도 다소 발견된다. 예를 들어 어산불영조에서 언급되는 불파부제(弗婆浮提), 아야사(阿耶斯), 마야사(摩耶斯) 등은 불전의 용례가 전무한 음역어로 간주된다. 또한 나건가라(那乾訶羅), 나갈가(那竭呵) 등은 극히 희소한 용례뿐이어서 그 원어가 불투명하다. 특히 대산오만진신조에서 의미심장한 범어로 언급된 가라과좌낭(呵囉婆佐曩), 달예다구야(達嘯哆佉嘯), 낭가사가낭(曩伽呬伽曩), 달예노사나(達嘯盧舍那)는 오직 삼국유사에서만 발견된다. 이것들은 삼국유사 특유의 범어로 취급될 수 있지만, 선행 용례와 원어가 모호하므로 삼국유사를 이해하는 데 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본론은 이처럼 특이한 음역어를 중심으로, 삼국유사 이해의 장애가 될만한 음역어들을 고찰하여 그 원류를 구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여기서는 먼저 편찬자가 구사한 특정 음역어의 원어를 고전 범어로 환원하고⁴⁾, 아울러 그 해당 음역어가 기존 불전에서 구사된 용례를 검토한다. 이와 같이 원어와 용례를 구명함으로써 삼국유사에 찬술된 불교 관련 기사의 원류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사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訶羅, 呵囉婆佐曩, 伽藍, 伽毘羅, 袈裟, 迦葉, 乾達婆, 劫, 闍賓, 南無亡國, 矩矩吒訶說羅(矩矩吒訶說羅), 拘留孫佛, 那竭, 那竭呵, 那乾訶羅(耶乾訶羅), 那蘭陀, 難陀, 曩伽呬伽曩, 盧舍那, 茶毗, 達拏, 達摩, 怛提伽, 達嘯盧舍那, 達嘯哆佉嘯, 切利, 兜率, 頭陀, 羅刹, 羅漢, 蘭若, 摩那斯(摩耶斯), 摩訶袈裟, 摩尼, 摩羅難陀, 摩羅難陀, 摩耶, 麻耶, 文殊, 彌勒, 彌陀, 彌陀利, 般若, 梵, 菩薩, 菩提, 寶陀洛伽, 梟伊婆婆訶, 佛, 佛陀, 弗婆浮提, 比丘, 比丘尼, 毘盧遮那, 毘摩羅, 毘瑟, 那若多羅, 娑羅, 舍利, 舍利弗, 沙彌, 三昧, 釋迦牟尼, 釋迦文, 所瑟, 蘇判尼, 窣堵婆, 僧伽, 僧尼, 阿那斯(阿耶斯), 阿耨菩提, 阿羅, 阿羅漢, 阿蘭若, 阿離那跋摩, 阿彌陀, 阿踰陀, 阿育, 阿舍, 涅槃, 闍浮, 闍浮提, 于于三阿干, 瑜珈, 由旬, 帝釋, 刹尼那帝, 刹利, 陀羅尼, 婆伽婆, 判尼判尼, 布薩, 胡麻, 多麼. 이상에서 陀는 주로 陁로 표기되어 있다.

2) 삼국유사에는 이 경전이 金光經 또는 最勝王經으로 두 차례 언급된다.

3) 觀佛三昧經은 開元釋教錄에서 사용한 佛說觀佛三昧海經의 약칭이다.

4) 중국에 전래된 불전들 중에는 그 원어가 방언이거나 방언 형태의 범어인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불전 언어의 특성상 그 원어를 범어로 환원하거나 비정(比定)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원어가 방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러한 특성을 전제로 하여 음역어의 원어를 범어로 환원 또는 비정한다.

II. 어산불영(魚山佛影)조의 범어

삼국유사 권3은 흥법(興法)과 탑상(塔像)이라는 두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어산불영이라는 조목은 탑상에 배속되어 있다. 어산불영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음역어들은 다음과 같다.

나찰(羅刹), 가라(訶羅), 삼매(三昧), 범(梵), 가비라(伽毘羅), 석가문(釋迦文)⁵⁾, 나건가라(那乾訶羅), 불파부제(弗婆浮提), 아누보리(阿耨菩提), 불(佛), 바가바(婆伽婆), 나갈가(那竭呵), 나갈(那竭), 유순(由旬), 겁(劫), 슬도파(窣堵婆), 아나사(阿那斯=阿耶斯), 마나사(摩那斯=摩耶斯)⁶⁾.

이것들 중의 상당수는 한역(漢譯) 불전에서 널리 통용되는 상투어에 속하므로 특별한 고찰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訶羅, 那乾訶

5) 대정신수대장경(T)에 수록된 삼국유사에는 釋迦文이 언급된 대목을 “今者成道號釋迦. 文王聞是語.”(T 49, p. 998a)라고 잘못 판독했다. 이 판독에 의하면 원문은 “지금 도를 이루어 호를 석가라고 한다고 하였다. 문왕(文王)은 이 말을 듣고”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은 釋迦文이 釋迦文尼(sakyamuni)를 축약한 음역임을 고려하지 못한 오류이다. 따라서 “今者成道號釋迦文, 王聞是語”(지금 도를 이루어 호를 釋迦文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왕이 이 말을 듣고)가 바른 판독이다.

6) 어산불영조에서 편찬자는 古記를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阿耶斯는 摩耶斯의 와전이라고 부기했다. 그러나 말미에서는 이 둘이 각각 阿那斯와 摩那斯의 오기라고 단정한다. “古記云 萬魚寺者 古之慈成山也 又阿耶斯山(當作摩耶斯此云魚也) … 海東人名此山爲阿那斯 當作摩那斯 此翻爲魚.” 한국불교전서, pp. 332-4. “古記에 말하기를 萬魚寺는 옛날의 慈成山 또는 阿耶斯山(阿耶斯는 마땅히 摩耶斯라고 해야 할 것이니 곧 魚라는 말이다)인데 … 海東 사람이 이 산을 이름하여 阿那斯라고 하였으나 마땅히 摩那斯라 해야 할 것이다.” 李丙燾, pp. 301-4. 李丙燾 역의 『삼국유사』는 1969년 廣惠出版社에서 4판으로 간행된 이래 다른 출판사들로 판권이 양도되어 간행되어 왔다. 내용 열람과 검색은 다음 주소에서 가능하다. <http://www.krpia.co.kr/pcontent/?svcid=KR&proid=4>

羅, 弗婆浮提, 那竭呵, 那竭, 阿那斯, 摩那斯 등은 기존 불전에서 생소하거나 삼국유사에서 지칭하는 대상이 매우 모호하다. 이 때문에 삼국유사의 역주자들도 대체로 이것들을 방치하기 일쑤이다. 따라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은 면밀한 고찰을 통해 역주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1. 아나사(阿那斯)와 마나사(摩那斯)

삼국유사의 편찬자는 阿那斯라는 음역어를 摩那斯로 교정한 후, 摩那斯의 의미가 물고기(魚)인 것을 사람들이 산의 이름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편찬자는 摩那斯에 관해 “이것은 魚의 번역인데 대개 저 북천축의 기사를 취하여 [산의 이름으로] 일컬었던 것이다.”⁷⁾라고 기술한다. 어산불영조에서 편찬자가 주장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옛 기록에서는 옛날의 자성산(慈成山) 또는 아나사산(阿那斯山)을 만어사(萬魚寺)로 일컬었으나, 阿那斯는 摩那斯의 와전이다. 왜냐하면 만어사라는 이름에서 어(魚)를 의미하는 범어는 摩那斯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해당 음역어들의 원어와 용례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먼저 阿那斯가 산의 이름으로 사용된 예는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에서 “나찰들의 소굴 가운데 가파른 阿那斯山の 남쪽”⁸⁾이라고 발견된다. 편찬자가 말하는 ‘북천축의 기사’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중국에서 작성된 일종의 범어 사전에 상당하는 『번범어(翻梵語)』는 이 阿那斯의 의미를 무식처(無食處)로 제시한

7) 此翻爲魚 蓋取彼北天事而稱之爾. 각주 6에 있는 원문의 후속 구문.

8) 羅刹穴中阿那斯山巖南. T 15, p. 679b.

다.⁹⁾ 이에 의하면 阿那斯의 원어는 ‘음식(aśa)이 없음(an-)’을 뜻하는 anāśa로 확정할 수 있다. 또한 anāśa는 동사 naś(소멸하다)에서 유래하여 ‘불멸’의 의미로도 사용되므로 산의 이름으로 적할 수 있다. 그러나 阿那스가 나찰과 결부된 점을 고려하면, 『번범어』의 설명이 관불삼매해경의 阿那스와 합치할 것이다.

이에 반해 摩那斯의 용례는 편찬자의 주장과 정확히 합치하지는 않는다. 물고기(魚)의 범어로서 일반적인 것은 matsya이다. 그러나 matsya는 주로 말차(末蹉)로 음역될 뿐만 아니라, 범어의 ta음이 那로 표기되는 용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摩那스에 합당한 원어 중 matsya는 일단 배제된다.

한역 불전에서 摩那斯는 대부분 용왕의 이름으로 언급되고, 간혹 용(龍) 또는 신(神)의 이름으로 언급된다. 법화경에서 이 摩那斯는 8대 용왕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다. 특히 법화경의 범본에 의하면 摩那斯의 원어는 manasvin(남성 주격은 manasvī)으로 확인된다.¹⁰⁾

한편 번역명의집(翻譯名義集)에서는 摩那斯의 의미를 대신(大身), 대의(大意), 대력(大力)으로 제시한다.¹¹⁾ 그리고 일체경음의

(一切經音義)에서 摩那斯의 의미를 자심(慈心)으로 제시한¹²⁾ 것은 원어 manasvin의 의미와 합치한다. 이처럼 摩那斯의 원어는 魚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삼국유사의 편찬자가 摩那斯의 의미를 魚로 제시한 이유를 재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불전 중 월등삼매경(月燈三昧經)은 유일하게 摩那斯를 해룡(海龍)의 이름으로 한 차례 언급한다.¹³⁾ 그리고 보살본행경(菩薩本行經)에서는 摩那斯가 다음과 같이 해룡과 연관을 갖는 것으로 언급된다.

이때 바루니(波留尼)로 불리는 해룡의 왕에게 마나사(摩那斯)라는 부인이 있었다.¹⁴⁾

여기서 摩那斯의 원어는 manasvin의 여성격인 manasvini가 된다. 불전의 용례에서 波留尼는 힌두교의 수신(水神)인 Varuṇa의 음역이다.¹⁵⁾ 이러한 두 용례에서 摩那斯는 물(水)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불전에서 摩那斯는 자비심을 원의로 갖고 물과 관련된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摩那스와 자비심과 물과의 연관은 60권 화엄경(佛馱跋陀羅 번역의 大方廣佛華嚴經)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불자들이여, 비유하자면 摩那斯라는 용왕은 장차 비를 내리려 할 때, 먼저 질은 구름을 일으켜 허공에 가득 채우고는 7일 동안 정지시켜 비를 내리지 않고, 우선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업을 깊이 통찰하게 한다. 왜 그러한가? 그 위대한 용왕은 자비심으로 7일이 지나고 나

동일하다.

12) 摩那斯: 摩捺斯此云慈心. T 54, p. 483a.

13) 餘多千龍王 海龍摩那斯. T 15, p. 561a.

14) 時海龍王名波留尼 王有夫人名摩那斯. T 3, p. 122b.

15) 동일 원어의 음역인 婆留尼가 摩訶僧祇律에서 용왕의 이름으로 언급된다. 常護世間 有龍王名婆留尼. T 22, p. 501a. 이러한 용례들로 보아, 남성으로서의 용왕 manasvin(摩那斯)은 varuṇa(波留尼=婆留尼)의 별칭임을 알 수 있다.

9) 阿那斯 譯曰無食處也. T 54, p. 1043c. 여기서는 阿那斯의 출처를 觀佛三昧經 第八卷으로 제시했으나, 현존 판본에서는 제7권이다.

10) “수천만 수십만의 많은 용들을 권속으로 가진 여덟 용왕들과 함께 있었으니, 즉 [그 여덟 용왕이란] Nanda(難陀) 용왕과 Upananda(跋難陀) 용왕, 그리고 Sāgara(娑伽羅), Vāsuki(和脩吉), Takṣaka(德叉迦), Anavatapta(阿那婆達多), Manasvin(摩那斯), Utpalaka(優鉢羅)라는 용왕이다.”(aṣṭābhiśca nāgarāḡiḥ sārđham bahunāgakoṭīśatasahasraparivāraiḥ/ tadyathā nandena ca nāgarājena upanandena ca nāgarājena sāgaraṇa ca vāsukinā ca takṣakeṇa ca manasvinā ca anavataptaṇa ca utpalakena ca nāgarājena/) Vaidya, p. 2, ll. 15-17. 이 원문을 鳩摩羅什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有八龍王 難陀龍王 跋難陀龍王 娑伽羅龍王 和脩吉龍王 跋難陀龍王 娑伽羅龍王 和脩吉龍王 德叉迦龍王 阿那婆達多龍王 摩那斯龍王 優鉢羅龍王等 各與若干百千眷屬俱.” T 9, p. 2a.

11) 摩那斯 此云大身 或云大意 或云大力. T 54, p. 1078c. 여기서 T는 摩那斯의 원어를 manasin으로 제시하는데, manasin와 manasvin은 의미상

서 점차 보슬비를 내려 대지를 두루 적시려 하기 때문이다.¹⁶⁾

위의 기술에서 摩那斯, 용왕, 비(물), 자비심은 불가분한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편찬자가 摩那斯의 의미를 물고기(魚)로 제시한 것도 ‘물’이라는 간접적인 관계에서만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의미상 상관 관계의 친밀성을 고려한다면 ‘물’보다는 ‘자비심’이 摩那斯와 직결된다. 그리고 이 친밀성은 만어사의 옛 이름이었다고 하는 자성산(慈成山)에도 적용된다. 摩那斯에는 어(魚)의 의미가 없지만 자(慈)의 의미는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검증에 의하면, “阿耶斯는 마땅히 摩那斯라고 해야 할 것이니 곧 魚라는 말이다.”라고 기재한 편찬자의 부연 설명에서 魚는 慈로 개정(改訂)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편찬자가 직접적인 용례가 없음에도 摩那斯(즉 摩那斯)의 의미를 굳이 魚로 제시한 것은, 순전히 옛 기록(古記)의 전설에 나오는 萬魚라는 이름을 불전의 유사 용례로 그럴듯하게 설명하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편찬자의 이 같은 의도는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간파할 수 있다.

옛적에 하늘에서 알이 바닷가에 내려와 사람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으니 곧 수로왕이다. 이때에 경내에 옥지(玉池)가 있었는데 그 못 속에 독룡이 살고 있었다. 만어산(萬魚山)에 다섯 나찰녀(羅刹女)가 있어 [그 독룡과] 서로 왕래 교통하였다. 그러므로 번개와 비를 때때로 내려 4년 동안 오곡(五穀)이 결실되지 않았다. 왕이 주술로 [이것을] 금하려 하였으나 능히 금치 못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님께 청하여

16) 復次 佛子 譬如摩那斯龍王 將欲降雨 先興重雲 彌覆虛空 凝停七日 而未降雨 先令衆生 究竟諸業 何以故 彼大龍王 慈悲心故 過七日已 漸降微雨 普潤大地. T 9, p. 620a.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는 이 설법을 용례로 삼아 摩那斯龍王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摩那의 의미는 意이며, 斯의 의미는 慈이고 流出이다. 이 용왕이 무릇 구름을 거둬 일으키는 것은 모두 慈心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 摩那斯龍王: 摩那意也 斯慈也 流出也 言此龍王凡興雲再皆從慈心出也. T 54, p. 447a.

설법한 후에야 나찰녀가 5계를 받아 그 뒤에는 재해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동해의 어룡(魚龍)이 마침내 화하여 동중(洞中)에 가득찬 돌이 되어 각기 종경(鐘磬)의 소리가 난다. 이상은 고기(古記)이다.¹⁷⁾

摩那斯의 용례 중 해룡을 위의 전설에 있는 ‘동해의 어룡(魚龍)’과 결부시키면, 결국 摩那斯와 魚의 결부도 성립된다. 이 결부에서 魚가 지칭하는 것은 불전에 나오는 용왕, 특히 해룡이다. 어쨌든 摩那斯를 魚의 번역으로 명시한 것은 오류이지만, 이와 같은 결부는 불전의 용례를 원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나건가라(那乾訶羅)와 불과부제(弗婆浮提)

어산불영조에서 訶羅는 ‘북천축(北天竺)의 가라국(訶羅國)’이라는 지명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訶羅國이 단독의 사용된 예를 불전들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단독의 지명으로서 訶羅國은 오직 삼국유사에서만 언급된다. 그런데 이 말이 언급되는 어산불영조의 문맥을 검토하면 訶羅는 那乾訶羅의 축약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어산불영조의 관련 대목은 다음과 같다.

이 산중의 기이한 자취가 북천축(北天竺)의 가라국(訶羅國)의 부처의 영상(佛影)에 관한 일과 서로 맞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중략)… 북천축의 글은 뒤에 자세히 기록하였다. 가함(可函)¹⁸⁾의 관불삼매경 제7권에 이르기를 “부처가 야건가라국(耶乾訶羅國) 고선산(古仙

17) 李丙燾, pp. 301-2. 昔天卵下于海邊 作人御國 卽首露王 當此時 境內有玉池 池有毒龍焉 萬魚山有五羅刹女 往來交通 故時降雷雨 歷四年五穀不成 王呪禁不能 稽首請佛說法 然後羅刹女受五戒而無後害 故東海魚龍 遂化爲滿洞之石 各有鍾磬之聲. 已上古記. 한국불교전서, p. 332.

18) 고려대장경의 경판을 분류할 때 천자문의 순서로 배열했는데, 관불삼매경은 可字의 函에 배속되었다.

山), 담복화림(舊菴花林) 독룡(毒龍)의 옆, 청련화천(靑蓮花泉)의 북쪽, 나찰혈(羅刹穴) 가운데에 있는 아나사산(阿那斯山)의 남쪽에 이르니, 이때 그 구멍(穴) 가운데 다섯 나찰이 있어 여룡(女龍)으로 화하여 독룡과 더불어 교통하였다. 독룡은 때때로 우박을 내리고 나찰은 난폭한 행동을 함부로 하므로 4년 동안이나 기근과 질역이 계속되었다. …(중략)… 그때 여래가 비구로서 6신통을 얻은 자에게 명하여 자기의 뒤를 따르라 하고 나건가라왕(那乾訶羅王) 불과부제(弗婆浮提)의 정을 들어 주기로 하였다. …”¹⁹⁾

위의 기술에서 야건가라(耶乾訶羅)는 나건가라(那乾訶羅)의 오기이다. 말미에 있는 나건가라왕이란 나건가라국의 왕을 지칭하는 데서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관불삼매경의 원문에서도 이 대목은 “여래가 어떻게 하여 나건가라국에 이르게 되었는가?”²⁰⁾라고 시작된다.

그런데 극소수의 한역 불전에서 那乾訶羅라는 음역어를 사용하지만, 이것들의 모두 관불삼매해경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전의 범본은 현존하지 않으므로 那乾訶羅의 원어를 확정하기 곤란하다. 다만 동일한 원어가 번역자에 따라 다르게 음역되어 왔던 관행을 고려하여 那乾訶羅의 원어를 추정해 낼 수 있다.

현장(玄奘)은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권2에서 나게라갈국(那揭羅曷國)을 소개하면서, 이 곳을 북인도의 경계에 위치한 험난한 곳으로 전한다.²¹⁾ 그런데 대당서역기 말미의 찬(讚)에는 이 나게

라갈국과 나건가라국이 동일한 지명임을 단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광좌(光座)까지 통틀어 높이 3척 5촌인 금불상 1구는 나게라갈국에서 독룡을 항복시키고 영상(影)을 남겼던 상(像)을 본뜬 것이다.²²⁾

여기서 “독룡을 항복시키고 영상(影)을 남겼던”이라고 하는 언급은 전술한 관불삼매해경에서 유래한 것이 분명하며, “북천축(北天竺)의 가라국(訶羅國)의 부처의 영상(佛影)에 관한 일”이라는 어산불영조의 기술과도 합치한다. 더욱이 어산불영조에서는 나게라갈국에 관한 대당서역기의 기사도 인용하고 있다.

나게라갈(那揭羅曷)에 해당하는 범어는 nagarahāra로 알려져 있다.²³⁾ 따라서 나건가라(那乾訶羅)의 원어도 nagarahāra이다. 이 원어는 한역 불전에서 那伽羅曷, 那迦羅訶, 那迦羅阿 등으로도 음역된 예가 있다. 특히 어산불영조에서 언급하는 나갈(那竭) 및 나갈가(那竭呵)는 이 원어를 축약한 음역어로 확정할 수 있다. 어산불영조에서는 고승전(高僧傳)과 고승법현전(高僧法顯傳)을 각각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고승전에는 이르기를 혜원(惠遠)이 들으니 천축에 부처의 영상(佛影)이 있는데 [그것은] 옛적에 용을 위하여 남겼던 부처의 영상으로 북천축 월지국(月支國)의 나갈가성(那竭呵城) 남쪽 고선인(古仙人)의 석실 속에 있었다.

또 법현(法現=法顯)의 서역전(西域傳)에는 이르기를 나갈국(那竭國)의 경계에 이르면 나갈성(那竭城) 남쪽 반 유순(由旬) 되는 곳에 석실이 있으니 [그곳은] 박산(博山)의 서남쪽이며, 그 석실 가운데 부처의

山周四境縣隔危險. T 51, p. 878b.

22) 金佛像一軀, 通光座高三尺五寸, 擬那揭羅曷國伏毒龍所留影像. T 51, p. 946c.

23) 현재의 지명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Jelalabad(즉 Jalalabad)를 중심으로 하는 카불(Kabul) 강 유역의 남부 지역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유적이 많기로 유명하다고 한다. 水谷眞成, p. 76, n. 1.

19) 李丙燾, p. 302. 山中奇異之迹 與北天竺訶羅國 佛影事符同者有三 … 可函觀佛三昧經第七卷云, 佛到耶乾訶羅國古仙山 舊菴花林毒龍之側 靑蓮花泉北 羅刹穴中 阿那斯山南 爾時彼穴有五羅刹 化作女龍 與毒龍通 龍復降雹 羅刹亂行 飢饉疾疫 已歷四年. … 爾時如來 勸諸比丘 得六神通者 隨從佛後 受那乾訶羅王弗婆浮提請. 한국불교전서, p. 333a.

20) 云何名如來到那乾訶羅國. T 15, p. 679b.

21) “이곳으로부터 동남쪽으로 백여 리를 가다가 큰 고개를 넘어서 큰 강을 건너면 나게라갈국(북인도의 경계)에 이른다. 나게라갈국은 동서로 6백여 리, 남북으로 250~260여 리이며, 주변을 사방으로 두르고 있는 산으로 가로막혀 험난하다.” 從此東南行百餘里 踰大嶺 濟大河 至那揭羅曷國(北印度境). 那揭羅曷國 東西六百餘里 南北二百五六十里

영상(佛影)이 머물고 있는데 10여 보 떨어져 바라보면 부처의 참모습과 같이 광명이 찬란하나 멀어질수록 점점 희미하게 보였다.²⁴⁾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은 那竭 또는 那竭呵가 부처의 영상(佛影)과 함께 언급된 점이다.²⁵⁾ 결국 어산불영조에 언급된 訶羅, 那乾訶羅, 那竭, 那竭呵는 모두 동일한 지명이며, 이것들의 원어는 nagarahāra이다. 다만 이것 중 訶羅는 삼국유사에서만 사용된 지명인 점에서 특이하다. 삼국유사의 기술에서는 이 지명들의 원류로 간주되는 관불삼매해경에 의거하여 訶羅가 약칭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어산불영조에서는 동일한 지명이 네 가지로 혼재한다. 편찬자인 일연은 그 넷이 동일 지명임을 인지했을 것이지만, 인용한 원전의 서술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독자들에게 오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불전의 용례를 낱낱이 검토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물론 독자들은 이러한 검토를 역주자들에게 기대한다.

한편 어산불영조에서 불파부제(弗婆浮提)는 나건가라국의 왕의 이름으로 언급되어 있다.²⁶⁾ 그러나 이 음역어 역시 오직 삼국유사에서만 발견된다. 어산불영조에서 인용한 관불삼매해경에서는 이것이 弗巴浮提로 표기되어 있다.²⁷⁾ 그런데 弗巴浮提도 관불삼매해경에서만 한 차례 사용될 뿐 다른 용례가 전무하다.²⁸⁾ 이 때문에

弗巴浮提의 원어는 다른 음역의 용례들을 참조하여 모색할 수밖에 없다.

弗巴浮提 또는 弗婆浮提와 가장 근접한 음역어로는 우선 불파비제(弗婆毘提)를 고려할 수 있다. 弗婆毘提는 범어 pūrva-vidēha의 축약형 음역이며, 이보다 온전한 형태는 弗婆毘提訶이다. 그러나 한역 불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것은 축약형인 불파제(弗婆提)이다.²⁹⁾ 그런데 범어 pūrva-vidēha는 불교의 우주관에서 수미산을 중심에 둔 4대주 중 동쪽에 위치한 대륙의 이름이다. 따라서 인명인 弗婆浮提는 지명인 pūrva-vidēha와 합치하지 않는다. 더욱이 음역의 관행에서 vi 음이 浮로 음역된 예는 거의 없다. 弗巴浮提의 원어를 추정할 만한 단어별 용례가 전무하다면, 차선책은 음절 단위의 용례로 모색하는 것이다.

현우경(賢愚經) 권9에서 부인의 이름으로 언급되는 불파(弗巴)의 범어는 꽃을 의미하는 puṣpā로 추정되어 있다.³⁰⁾ 이 경우 puṣpa는 공작왕주경(孔雀王呪經)에서 puṣpa(花)-āhāra(食)가 弗婆訶羅로 음역된 것처럼 弗婆로도 음역된다.³¹⁾ 한편 범어의 ti, thi, di, dhi 등에 상당하는 음은 주로 提로 음역된다.³²⁾ 동진(童眞)의 의미로 인명인 kumārabhūta가 구마라부다(究磨羅浮多)로 음역되었듯이³³⁾, 浮는 bhū의 음역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음역 형태를 弗

언급하지만, 이는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관불삼매해경을 인용한 것일 뿐이다.

29) 이 때문에 一切經音義에서도 이 축약형을 표제어로 내걸어 東勝身洲로 번역하고, 원음을 충실히 모사한 음역으로 逋利婆鼻提賀, 補囉嚩尾爾賀, 通利婆鼻提賀 등을 제시한다. T 54, p. 314c, 658b, 777b.

30) 대장경색인, p. 161a.

31) 弗婆訶羅(梁言食花). T 19, p. 446c. puṣpa의 음역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는 富沙, 弗沙, 弗娑, 弗霸 등이 있고, 더 온전한 형태로는 富數波, 補澁波, 補澁窺, 補澁波, 補澁跋, 補瑟波, 富沙富, 弗沙波, 佛瑟婆, 布澁波 등이 사용된다.

32) 단적인 예를 들어 석가모니 당시 16대국 중 하나로 유명한 avanti(팔리어 avanti)는 阿槃提, 阿盤提, 阿槃提, 阿畔提 등으로 통용된다.

33) T 54, p. 1083a의 각주 2.

24) 李丙燾, p. 303. 高僧傳云 惠遠聞天竺有佛影 昔爲龍所留之影 在北天竺月支國那竭呵城南古仙人石室中. 又法現西域傳云 至那竭國界 那竭城南半由旬有石室 博山西南面 佛留影此中 去十餘步觀之 如佛眞形 光明炳着 轉遠轉微. 한국불교전서, p. 333bc.

25) 高僧法顯傳의 서두에서도 “慧景, 慧達, 道整, 이 세 사람이 부처의 영상(佛影)이 있는 나갈국(那竭國)을 향해 먼저 출발했다.”고 기술한다. 慧景慧達道整三人 先發向佛影那竭國. T 51, p. 858a.

26) 각주 19 참조.

27) 受那乾訶羅王弗巴浮提請. T 15, p. 679c.

28) 중국인의 저술 중 澄觀의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에서

“如來受那乾訶羅王弗巴浮提請”(T 36, p. 161a)이라고 弗巴浮提를

巴浮提에 적용하면, 이것에 합당한 범어를 puṣpa(弗巴)-bhūti(浮提)로 추정할 수 있다. puṣpabhūti는 ‘꽃의 정수’를 의미하지만, 왕의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³⁴⁾

그러나 원전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같은 추정은 잠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弗巴浮提에 가장 합당한 잠정적인 원어를 puṣpabhūti로 제시할 수 있다.

III.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조의 범어

한역 불전에서는 합치하는 용례를 발견할 수 없는 특수한 음역어들이 대산오만진신조에서 소위 ‘네 구절의 계송’(四句偈)으로 열거된다. 그 넷은 가라과좌낭(呵囉婆佐囊), 달예다구야(達嘍哆佉野), 낭가사가낭(曩伽佉伽曩), 달예노사나(達嘍盧舍那)이다.³⁵⁾ 이것들이 언급되고 있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산중의 고전(古傳)에 의하면 “이 산을 진성(眞聖)이 거주한 곳이라고 한 것은 자장(慈藏)법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처음에 법사가 중국 오대산(五臺山) 문수진신(文殊眞身)을 보고자 선덕왕(善德王) 때인 당나라 정관(貞觀) 10년 … 당(唐)에 건너갔다. 처음에 중국 태화지(太和池)가의 돌부처 문수가 있는 곳에 이르러 경건하게 7일 동안 기도하였더니 홀연히 꿈에 대성(大聖)이 네 귀의 계(偈)를 주는 것이었다. 꿈을 깨고 보니 기억은 하겠으나 모두 범어이므로 그 뜻은 전연

34) Monier-williams, p. 639c.

35) 한자어가 음역일 경우, 원어의 음가에 근접하는 독음을 채택하는 것이 음역어의 특성에 합당하다. 음역 한자에서 ㄹ는 주로 kha의 음역이므로 ‘가’로, ㅍ는 주로 hi의 음역이므로 ‘회’로 독음하는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는 이 음역어들의 원어가 불확실하므로 여기서 인용한 역자(李丙燾)의 표기를 그대로 따랐다.

알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에 난데없이 한 중이 붉은 깃에 금점(金點)이 있는 가사 한 벌과 부처의 머리뼈 하나와 불두골(佛頭骨)의 한 조각을 가지고 법사의 곁에 와서 “어찌하여 수심에 싸여 있습니까?”고 물었다. 법사가 “꿈에 네 귀의 계를 받았으나 그 계가 범어이므로 해석할 수 없어서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중이 번역하여 알려주기를 “가라과좌낭(呵囉婆佐囊)이라는 것은 일체의 법을 요지(了知)하였다는 말이요, 달예다구야(達嘍哆佉野)라는 것은 자성(自性)이 가진 바 없다는 말이요, 낭가사가낭(曩伽佉伽曩)이라 함은 법성(法性)을 이렇게 해석한다 하는 말이요, 달예노사나(達嘍盧舍那)라 함은 노사나(盧舍那)를 곧 본다는 말입니다.”³⁶⁾

여기에는 각 구절의 의미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呵囉婆佐囊: 일체의 법을 요지하였다.(了知一切法)
 達嘍哆佉野: 자성이 가진 바 없다.(自性無所有)³⁷⁾
 曩伽佉伽曩: 법성을 이렇게 해석한다.(如是解法性)
 達嘍盧舍那: 노사나를 곧 본다.(卽見盧舍那)

이 음역어들은 의미가 제시되어 있음에도 그 원어를 거의 추정할 수 없다. 제시된 의미에 합당하는 음역어의 용례가 사실상 전무하다. 더욱이 여기서는 음역어와는 별개로 독립된 구문이었던 번역문을 음역어(범어)의 의미로 제시한 듯하다. 이러한 추정의 결정적인 근거가 80권 화엄경(實叉難陀 번역의 大方廣佛華嚴經) 권 16에서 발견된다. 이의 의하면 상기한 네 구절의 번역문은 승혜

36) 李丙燾, p. 307. 按山中古傳 此山之署名眞聖住處者 始自慈藏法師. 初法師欲見中國五臺山文殊眞身 以善德王代貞觀十年 … 入唐. 初至中國大(=太)和池邊石文殊處 虔祈七日 忽夢大聖授四句偈 覺而記憶 然皆梵語 罔然不解. 明且忽有一僧 將緋羅金點袈裟一領 佛鉢一具 佛頭骨一片 到于師邊 問何以無聊 師答以夢所受四句偈 梵音不解爲辭 僧譯之云 呵囉婆佐囊 是日了知一切法 達嘍哆佉野 云自性無所有 曩伽佉伽曩 云如是解法性 達嘍盧舍那 云卽見盧舍那. 한국불교전서, p. 334a.

37) 북한에서 번역한 삼국유사에서는 이 대목을 “자기의 본성은 아무것도 없다.”(리상호, p. 400)라고 해석했는데, 이 해석이 더 타당하다.

(勝慧)보살이 설하는 계승의 일부를 그대로 발취한 것이다.³⁸⁾ 그리고 이 계승의 첫 구절인 ‘了知一切法’은 많은 불전에서 흔하게 반복되는 상투어이지만, 그 원어가 呵囉婆佐曩이라는 음역과는 전혀 합치하지 않는다. 了知一切法の 범어로는 sarva-dharma-jña 또는 sarva-dharma-vid를 상정할 수 있다. 이 중 sarva-dharma (一切法)만큼은 가라과좌낭(呵囉婆佐曩)과 부분적으로라도 합치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쪽의 음가는 전혀 다르다. 이 같은 사실은 네 구절의 음역어를 제시된 의미와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대산오만진신조의 기사에서는 처음부터 네 구절의 음역어들이 수수께끼처럼 설정되어 있으며, 이것들의 실체가 불가해하다는 복선을 깔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삼국유사의 편찬자는 불전을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기사는 ‘스님들 사이에 전하는 옛이야기’(山中古傳)에 의거한 것임이 천명되어 있다. 더욱이 후술 대목에서는 용(龍)이 출현하여, 자장법사에게 이 수수께끼의 답(범어 번역)을 일러준 스님은 곧 문수(文殊)보살이라고 알려준다.³⁹⁾ 이와 같은 설정은 파격적인 범어 음역을 구사한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을 무시하고 그 음역어들의 원어를 비정한다면, 넷째 구절인 達嚩盧舍那가 가장 수월해 보인다. 盧舍那是 毘盧舍那의 축약으로 그 원어가 vairocana(=virocana)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達嚩의 원어를 비정하는 데 있다. 보다(見)라는 의미를 가진 범어로서 達嚩로 음역된 직접적인 용례는 없다. 다만 자음별

용례를 적용하면 達嚩의 원어를 dhara(또는 dhāra)로 비정할 수는 있다.⁴⁰⁾ 이 경우에도 dhara-vairocana보다는 vairocana-dhara가 더욱 일반적인 어형이지만, 후자는 음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達嚩를 축약형으로 간주한다면⁴¹⁾ 達嚩의 범어를 dṛṣṭa 또는 dṛśya로 비정할 수 있다. 이 경우 達嚩盧舍那의 원어로 dṛṣṭa-vairocana 또는 dṛśya-vairocana는 “노사나를 본다(見盧舍那)”라는 번역과 합치한다. 그러나 이는 순전한 추측에 불과하다.⁴²⁾

상술한 고찰은 정확한 원어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며, 대산오만진신조에 열거된 네 구절의 음역어는 전혀 일관성이 없음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達嚩盧舍那를 구성하는 達嚩의 원어를 dhara, dṛṣṭa, dṛśya 등으로 비정하더라도 이것들은 둘째 구절인 達嚩呬野에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達嚩呬野의 의미가 自性無所有라면 自性, 無自性, 無性 등의 범어가 達嚩呬野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自性, 無自性, 無性 등에 상당하는 어떠한 범어도 그 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 같은 문제가 如是解法性을 의미한다고 하는 曩伽伽曩의 경우에는 더욱 크게 대두되어 당장은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다.

단적으로 말해서 상기한 네 구절은 기형적인 음역어이다. 이 기형성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단서는 그것들이 다라니 음역의 형태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그것들은 번역된 의미를 표시하는 기호일 수 있다. 이 가설의 단서로 주목되는 것은 첫째 구절인 呵囉婆佐曩이다.

38) 爾時 勝慧菩薩承佛威力 普觀十方而說頌言. … 了知一切法 自性無所有 如是解法性 則見盧舍那. (그때 승혜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승으로 말하였다. … “일체법은 자성이 없음을 깨달아 알지니, 이와 같이 법의 성질(法性)을 이해한다면 곧 노사나불을 뵈오리.”) T 10, pp. 81c-82a. 문제의 네 구절은 여기서 그 취지가 온전하게 드러난다.

39) “전날 계(偈)를 전하던 노승은 진짜 문수입니다.”(昔之傳偈老僧 是真文殊也. 한국불교전서, p. 334a.)

40) 達은 d, dh의 음역으로, 다라니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嚩는 r의 음역으로 통용된다. 達嚩의 범어를 이렇게 비정한다면, dhara(dhāra)는 受持, 護持, 기억 등의 의미이므로 達嚩盧舍那(dhara-vairocana)는 노사나(비로사나)를 항상 마음에 간직한다는 의미가 된다.

41) 이와 관련된 축약형으로는 dharmi(有法)를 達彌(T 42, p. 689a)로, karma(業)를 羯嚩(T 54, p. 1241c)로 음역한 예를 들 수 있다.

42) dṛṣ 또는 dṛś로 구성된 범어의 온전한 음역으로 예시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dṛṣṭa → 涅哩瑟吒. dṛśya → 涅哩舍野. dṛṣṭi → 達利瑟致, 捺哩瑟致. dṛṣṭyā → 禰哩瑟吒野.

이미 지적했듯이, 阿囉婆左曩은 了知一切法에 상당하는 어떠한 범어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阿囉婆左曩은 문수보살을 친견할 수 있는⁴³⁾ ‘5자(字) 진언(다라니)’과 합치한다. 즉 금강정초승삼계 경설문수오자진언승상(金剛頂超勝三界經說文殊五字眞言勝相)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5자 진언이란 阿, 囉, 跋, 左, 曩이다.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 진언을 잘 수지하여 겨우 한 차례 독송한 것으로도 여래의 평등한 일체법에 들어가, 모든 문자 역시 평등하게 되어 위대한 반야(지혜)를 곧바로 성취할 수 있다.⁴⁴⁾

이 설명의 요점은 5자 진언으로 일체법을 깨닫는 지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 요점을 극히 압축하면 첫째 구절(阿囉婆左曩)의 의미인 了知一切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5자 진언은 의미상으로 첫째 구절과 합치할 뿐만 아니라, 낱낱의 글자로도 합치한다.

5자 진언을 구성하는 阿-囉-跋-左-曩의 원어는 a-ra-pa-ca-na이다. 이것을 첫째 구절인 阿-囉-婆-左-曩와 대조하면 음역 표기상 상이한 것은 阿와 呵이다. 跋와 婆는 pa의 표기로 동일하고 左와 佐는 ca의 표기로 동일한 음역이다. 다만 呵는 주로 ha의 음역으로 통용되지만, 간혹 a의 표기로 사용된다.⁴⁵⁾ 더욱이 5자 진언

을 阿囉鉢撈捺 또는 阿囉鉢撈捺으로 표기한 사례도 있다.⁴⁶⁾

대산오만진신조에 열거된 네 구절의 음역어 중 첫째 구절인 阿囉婆左曩가 이상의 고찰과 같이 5자 진언이라면 나머지 구절도 일종의 다라니로서 조합된 것일 수 있다. 비록 그것들이 다라니가 아니라 극단적인 축약형의 음역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성격의 음역은 용도상 다라니와 다를 바 없다. 이 경우에는 그 원어를 추구하는 작업이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대산오만진신조의 네 구절에 대한 고찰은 아직 가설의 단계이므로, 특히 다라니 문헌들에 대한 충분한 섭렵과 검토를 과제로 남긴다.⁴⁷⁾

IV. 맺음말

이제까지 어산불영조와 대산오만진신조의 음역어들을 중심으로 삼국유사에 구사된 범어 음역의 원류를 고찰한 것은 그 두 조목에서 음역어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양쪽에서 구사된 음역의 성격도 판이하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었다. 그 판이한 성격이란 원어 추정이 비교적 수월한 것과 거

43) “만약 [이] 5자 진언을 범자로 베끼고 되풀이하여 돌면서 50만 번 염송하면, 문수보살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 설법하게 될 것이다.”
若…梵寫五字眞言 旋遶念誦五十萬遍 文殊菩薩現其人前而爲說法. T 20, p. 709c.

44) 五字眞言曰. 阿囉跋左曩. 若善男子善女人 有能持此眞言. 纔誦一遍卽入如來一切法平等. 一切文字亦皆平等. 速得成就學訶般若. T 20, p. 709b. 이와 동일한 진언은 金剛頂經瑜伽文殊師利菩薩供養儀軌(T 20, p. 719b), 曼殊室利童子菩薩五字瑜伽(T 20, p. 723b) 등 문수보살과 관련된 다라니에서 제시된다.

45) 八寒 지옥의 하나인 atata가 阿吒吒, 呵吒吒, 阿羅羅, 呵羅羅, 阿羅邏, 呵羅邏, 阿羅囉 등으로도 음역되듯이 阿와 呵는 종종 혼용된다. 그러나

阿羅漢(arhat, arahant)이 阿羅漢으로 표기된 예처럼((T 12, p. 518a), 呵는 阿의 오기인 경우도 있다.

46) 이것은 聖妙吉祥眞實名經에서 文殊菩薩五字心呪로 제시되어 있다. T 20, p. 834a.

47)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삼국유사 권2의 ‘眞聖女大王 居陁知’ 조목에 나오는 다라니이다. 陁羅尼曰 南無亡國 剌尼那帝 判尼判尼蘇判尼 于于三阿干 覺伊婆婆訶(한국불교전서, p. 296a). 이와 동일한 음역을 한역 불전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다라니 음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원류를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본론의 가설도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의 불가능할 만큼 난해한 것이다. 이 중 수월한 것은 출처가 명료한 데서 기인하며, 난해한 것은 출처가 모호한 데서 기인한다. 그리고 후자는 불전의 원어, 특히 범어에 대한 박약한 인식이나 전래 과정의 와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어산불영조에서 언급되는 訶羅, 那竭, 那竭呵, 那乾訶羅, 摩那斯, 弗婆浮提 등의 원어는 다양한 용례를 검토함으로써 비교적 수월하게 추정된다. 이 중에서 訶羅, 那乾訶羅, 那竭, 那竭呵는 모두 동일한 지명으로서 nagarahāra의 음역으로 파악된다. 또한 摩那斯的 원어는 manasvin으로서 주로 용왕 또는 해룡(海龍)의 이름이지만, 삼국유사의 편찬자는 이것의 의미를 굳이 魚로 제시하여 萬魚寺의 유래와 결부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음역어들의 궁극적인 원류로는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을 지목할 수 있다. 한편 弗巴浮提에 가장 합당한 원어는 puṣpabhūti로 추정된다.

대산오만진신조에 열거된 가라과좌낭(呵囉婆佐曩), 달예다구야(達嘍哆佉嘍), 낭가사가낭(曩伽唎伽曩), 달예노사나(達嘍盧舍那)는 일종의 수수께끼와 같은 음역이다. 이것들은 범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음역의 일반 용례로써는 이것들에 상응하는 범어를 추정할 수 없다. 다만 다라니 문헌을 통해 이것들은 일종의 다라니로서 조합된 것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구절인 呵囉婆佐曩가 용도상의 의미와 표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할 수 있는 5자 진언(a-ra-pa-ca-na)과 합치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음역어들을 언급하는 대산오만진신조는 문수신앙과 직결되어 있다. 이처럼 呵囉婆佐曩이 다라니의 음역일 경우, 이 점은 나머지 세 음역어들의 원류와 원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다만 본론에서는 이 문제를 권2의 ‘眞聖女大王 居陁知’ 조목에 나오는 다라니와 함께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삼국유사에는 본문에서 취급하지 않은 특이한 음역어들이 구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달제가(怛提伽), 소슬(所瑟), 구구타예설라(矩矩吒磬說羅), 삼마(𑖀麼)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러나 편찬자는 이것들의 의미를 부기하고 있으므로, 본론의 고찰 방법을 적용

하면 그 원류 및 원어를 추정해 낼 수 있다.⁴⁸⁾

본론과 같은 고찰은 불전의 전문어가 과거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변형이나 와전을 거쳐 수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더 나아가 삼국유사의 역주자들은 이러한 고찰을 활용함으로써 삼국유사를 이해하는 데 더욱 유용한 지식을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T: 大正新脩大藏經.

대장경색인: 大藏經學術用語研究會 編. 『(大正新修)大藏經索引』, 第二冊. 東京: 大正新脩大藏經刊行會, 1967.

한국불교전서: 東國大學校 佛典刊行委員會 編. 韓國佛教全書, 第6冊, 高麗時代篇, 3.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79.

『高僧法顯傳』. T, 第51卷.

『孔雀王呪經』. T, 第19卷.

『金剛頂經瑜伽文殊師利菩薩供養儀軌』. T, 第20卷.

『金剛頂超勝三界經說文殊五字眞言勝相』. T, 第20卷.

『大唐西域記』. T, 第51卷.

『大般涅槃經』. T, 第12卷.

『大方廣佛華嚴經』 60권본. T, 第9卷.

『大方廣佛華嚴經』 80권본. T, 第10卷.

『摩訶僧祇律』. T, 第22卷.

48) 가장 쉬운 예로 𑖀麼의 경우, 편찬자는 “𑖀麼는 우리말로 중이라는 것이니 沙彌라는 말과 같다.”(𑖀麼者 乃鄉言之稱僧也 猶言沙彌也. 한국불교전서, p. 314b)라고 부기한다. 이로써 𑖀麼는 한역 불전에서 沙彌로 축역된 śramaṇera(팔리어로는 sāmaṇera)의 음역임을 알 수 있다.

『曼殊室利童子菩薩五字瑜伽』. T, 第20卷.

『妙法蓮華經』. T, 第9卷.

『翻梵語』. T, 第54卷.

『翻譯名義集』. T, 第54卷.

『菩薩本行經』. T, 第3卷.

『聖妙吉祥真實名經』. T, 第20卷.

『月燈三昧經』. T, 第15卷.

『瑜伽論記』. T, 第42卷.

『一切經音義』, 慧琳. T, 第54卷.

『賢愚經』. T, 第4卷.

리상호 역(1960). 『삼국유사(三國遺事)』, 평양, 과학원출판사(서울, 도서출판 신서원, 1990).

李丙燾 譯(1972). 『三國遺事』, 韓國名著大全集, 12, 서울, 大洋書籍.

水谷眞成 譯(1971). 『大唐西域記』, 『中國古典文學大系』 22, 東京, 平凡社.

Monier-Williams, Sir Monier(1899). *Sanskrit-English Dictiona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Vaidya, P. L.(1960) ed. *Saddharmapuṇḍarikasūtra*. Buddhist Sanskrit Texts, No. 6. Darbhanga, The Mithila Institute.

<http://www.krpia.co.kr/pcontent/?svcid=KR&proid=4>

Abstract

The Source of Transliterated Sanskrit Words Mentioned in the *Samgukyusa*

Jung, Seung Suk
(Dongguk Univ.)

In the case of *Samgukyusa*, which is a famous history book dealing with stories handed down from the era of the Three Kingdom Period, the words transliterated into Chinese from Sanskrit are found frequently in two articles named respectively Eosanbulyeong and Daesanomanjinsin.

There in Eosanbulyeong, some transliterated words are mentioned, such as nara(訶羅), nagal(那竭), nagalga(那竭呵), nageongara(那乾訶羅), manasa(摩那斯), bulpabuje(弗婆浮提). It is not comparatively difficult to assume their original language(Sanskrit) through investigating various examples. Among these, nara(訶羅), nagal(那竭), nagalga(那竭呵), and nageongara(那乾訶羅) are all understood as the single name of a place, and they can be reconstructed to be the transliteration of nagarahāra. Among others, manasa(摩那斯) is the name of dragon primarily, and its Sanskrit original is manasvin. But describing particularly its meaning as fish, the author(Ilyeon) of *Samgukyusa* relates it with the name of 'the temple Maneosa'(萬魚寺), which has the meaning of 'Ten thousand fishes'. Then, it is possible to trace the final source of these transliterations back to the scripture named *Guanfo Sanmei Hai Jing*(觀佛三昧海經), especially to the story about an image of Buddha in this text. Besides, the most suitable Sanskrit for bulpabuje(弗婆浮提) is assumed to be *puṣpabhūti*.

On the other hand, the original Sanskrit words of the transliterations such as garapajwanang(呵囉婆佐曩), dalyedaguya(達嚙哆佉野), nangasaganang(曩伽呬伽曩), and dalyenosana(達嚙盧舍那) enumerated in the article of Daesanomanjinsin can not be easily identified. Though the author adds the meaning of these transliterations, it is impossible to conjecture their origins from the examples of general transliteration system. For my part, it is very plausible to guess from the texts of *dhāraṇī* that those five words would be a sort of *dhāraṇī*. Because the first word, garapajwanang(呵囉婆佐曩) is in accord with the *dhāraṇī* built up five letters in utility. Moreover the article of Daesanomanjinsin states that those transliterated words are directly connected with the faith in Mañjuśrī. If the word garapajwanang originates from *dhāraṇī*, then it would shed light to the source and origin of the rest words.

The Buddhist technical terms had been apt to be transformed or misrepresented in Korea of the past. In the present investigation I take some examples from *Samgukyusa* and try to understand diverse practical aspects of the text. This paper is a small step toward the deeper understanding of this important text by doing some contributions to the transliterations, so far ignored or misunderstood among the historians of *Samgukyusa*.

Key Words: Samgukyusa, Ilyeon, Transliteration, Sanskrit, nagarahara, manasvin, Image of Buddha, Manjusri, Dharani

투고 일자 : 2009년 1월 28일

심사 기간 : 2009년 2월 2일~2월 10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2월 12일